

나는 보았다! 그녀의 민낯을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한때는 이 여자 참 맘에 들었었다. 얼굴이 예뻐서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런 이유도 없진 않았겠다.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알짜기 가수 남편이 말하지 않았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고 여자냐? 그녀는 금상한 생김새 마냥 마음도 딱 고을 것이라 짐작했었다.

그런 짐작은 감춰졌던 그녀의 비밀이 알려지면서 점차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녀에게는 장애인 딸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거리 하나쯤 갖고 있기 마련이라더니. 그 곱디고운 얼굴에도 어쩐지 얽은 그늘이 있는 것 같더라니. 연민이 더해지면 사랑도 깊어지는 것일까. 그녀가 좋아졌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도 남달랐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딸의 장애 사실을 말하자 학교 관계자가 그러더라.

“장애인을 교육시킨다고 일반 아이처럼 되는 줄 아십니까?”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모욕이었다”고 했다. 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보다, 전체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잘나가는 판사를 그만두고 험난한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다. 아이 엄마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

그랬던 그녀가 최근 들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우선 ‘5·18 망언’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이야 맞는 말 이긴 하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선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5·18 북한군 투입’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짜 뉴스다. 가짜는 가짜일 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없다. 그녀에 대한 첫 번째 실망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런데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언제부터 ‘태극기 부대 대변인’이 되었느냐”는 힐난(詰難)을 들어야 했던 그녀가 지난주 다시 입을 여니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

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 의견을 인용한 발언이긴 했으나 파장을 컸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의 이 같은 발언을 무조건 ‘막말’이라고 우기고 싶지는 않다. 조금 과하긴 했으나 하나의 비유로써 그렇게 봐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당으로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만 야당에선 가슴이 뻥 풀리는 듯한 ‘사이다 발언’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

이것은 막말인가 망언인가

기발한 비유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힘을 갖는다. 가령 최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어떤 이는 지난 2016년 민주당을 이끌던 김중일 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썩다 버린 껌’이라 했다. 이 또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태의 정곡을 정확히 찌르는 얼마나 통쾌한 발언일 것인가. 때론 역사사지(易地惡之)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소 아쉬운 점은 있되, 아직 그녀에 대해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이후 여당이 보인 반응이다. 민주당이 이뤄지면서 30여 년 전(1988년)에 폐지된 ‘국가 모독죄’를 들

고 나온 것이다. 여당 대표 또한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흔히 ‘국가원수 모독죄’로 잘못 알고 있는 바로 그 죄목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집(朕)이 곧 국가’이던 그 암울했던 독재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 시절, 대통령을 비판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원수(元首) 아닌 원수(怨讐)를 비판했다가 ‘원수 모독죄’의 울거미에 걸려 잡혀가곤 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보면, 시인 양성우(76)의 경우를 들 수 있다. 70년대 광주 중앙여고 국어교사였던 그는 장면시 ‘노에 수첩’에서 시인들을 노예에 빗대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다. 박정희는 그를 국가모독죄와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데 허필이면 과거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섰던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국가원수모독죄란 말인가. 정녕 욕하면서 달아나는 것이 정치권의 생리인 것인가. 과거의 것이 아무리 도를 넘어선다고 해도, 그의 악랄까지 들먹이며 칼을 뽑아 든 여당의 모습은 보기에 썩 좋지 못했다. 진정 여당답게 보다 어른스러울 수는 없었던 것일까.

문득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일화가 떠오른다. 어느 날 그는 잡지를 이리저리 들춰보다가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로 쓴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근거 없는 날조 기사에 분노한 대통령은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윽고 판결이 내려졌다. “귀 잡지사 기사는 허위로 판명된 바,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을 하시오. 손해 배상금은 1달러입니다.” 재판 결과를 들은 비서관이 물었다. “자하, 왜 고작 1달러만 청구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답한다. “중요한 것은 진실일세. 나에겐 손해 배상금은 의미가 없네. 이제 다 밝혀졌으니 만족하네.”

진짜 국론 분열 주범 누구네

다시 그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정치권에서는, 막말 논란이 일긴 했어도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 그녀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때마침 제1야당에 대한 지지율도 올랐다. 순전히 여당의 헛발질 덕분이다.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봐 줄 만했다.

그런데 이빨까, 끝내 그녀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다.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발언으로 영감결에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반민특위는 1948년 8월 헌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처벌하기 위해 설치됐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다. 일제에 국권을 넘기고 독립 운동가를 고문·박해한 친일파 처단은 당시 시대적 과제였다. 그런데 친일 세력과 결탁한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를 1년 만에 와해시켜 버렸다.

그러니 보라.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킨 게 아니라 이승만과 친일파가 바로 국민 분열의 주범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의 ‘참을 수 없는’ 천박한 역사 인식이란! 올해는 3·1만세 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그래 더욱 선조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 뜬금없이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제1야당 대표의 망언이라니. 지하에 있는 친일파들이 기뻐서 무덤 밖으로 뛰쳐나올 만한 얘기 아닌가. 독립운동가들의 대성통곡(大聲痛哭)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녀가 이런 여자였음을 예전엔 왜 몰랐던고. 실망을 넘어 절망감이 몰려온다. 이제 그녀에 대한 사랑을 차갑게 거둬들여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살면서 한때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다.

어등산 조성 민간사업자 3차 공모 추진

광주시, 사업자 공공성·관광인프라 확충 등 보완

광주시가 22일부터 3개월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개를 위해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추진한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주)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위해 4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1500실 규모의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호텔 운영조건 등을 둘러싼 광주도시공사와 (주)호반건설 간 이견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는 민관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 규모, 사업 참가 자격 등 지난해 7월 6일 공모(2차)와 같지만, 민간사업자의 공공성과 관광인프라확충,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일부 보완해 실시한다.

우선 개발계획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자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한 휴양·문화시설 등의 사업계획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서 공모기간을 2개월에서 3개

월로 연장해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각기준 가격을 제시했다. 또 상가시설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완화하고 사회환원 비율도 축소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개선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5성급(특1등급) 호텔 150실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유원지 부지(41만 7531㎡)의 50% 이상은 공공편익·휴양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상가시설은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존과 같이 2만4170㎡로 면적을 제한했다.

지난 2차 공모 당시 논란이 됐던 레지던스 호텔을 포함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관리 하에 전문운영사 숙박업 운영 조건으로 건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레지던스 호텔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모 절차는 4월 3일 사업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공모 지침에 대한 질의를

4월 5일~9일 제출받아 4월 19일 회신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는 6월 21일 접수해 시민평가단 및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어등산 관광단지는 시의 재정투입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등산 일원에 광주의 정체성에 걸맞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전체 면적은 골프장 156만7000㎡, 유원지 41만6000㎡, 녹지 등 75만3000㎡ 등 273만6000㎡였지만, 골프장은 지난 2012년 대중제 골프장 9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먼저 개장된 바 있다.

이명순 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제안 공모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창의적인 개발계획으로 능력있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에 ‘주거·복지·의료’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준공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주거·복지·의료’ 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이 장성읍에 문을 열었다. <사진>

장성군은 21일 장성을 공공실버주택 앞 광장에서 유두석 장성군수와 주요 기관 관계자, 군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타운 준공식을 개최했다.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건립에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1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164억원은 국비로 지원됐다.

누리타운은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계층을 위해 지은 신개념의 노인 전용 복지주택이다. 최고 10층 높이 건물로 총 150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독거세대를 위한 25㎡(14평)형 90가구와 부부세대가 머물 수 있는 35㎡(18평)형 60가구 2가지 모델로 준공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재 입주율은 113가구(75.3%)를 기록하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185만원~276만원에 월 임대료로 3만6000원~5만5000원 부담하면 된다. 일반 저소득층은 보증금 1028만원~1531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6000원~12만8000원



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투자 자문

3억이상, 연 2부이상 법적보장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지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클라우드에셋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 062)511-0030 · 팩스 : 062)512-876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536㎡ 백일홍·푸치빌·나무 200여주있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지음면 한우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적합 분할가능 3억7천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영광 염산면 신성리 땅 3088㎡ 주택 95㎡ 유실수 100여그루식재 2억
- 서구 화정동 양면 소방도로 접 235㎡ 주택은 공실 조용한생활적합 3억3천
- 서구 아파트단지 반치하노래방 265㎡ 풀7 교원가능 임대중임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무안읍 원림·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8억9천

상가건물

- 운암동 대형 아파트단지 지하 205㎡ 사무실 등 다용도 교환가능 2억2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양 땅 405㎡ 건물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터리와 대성로터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 등 적합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전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2천
- 나주 금천면 국도 접 주거지·대지·자연녹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사육 등 적합 12억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급매-8억

문의. 010-3605-5000